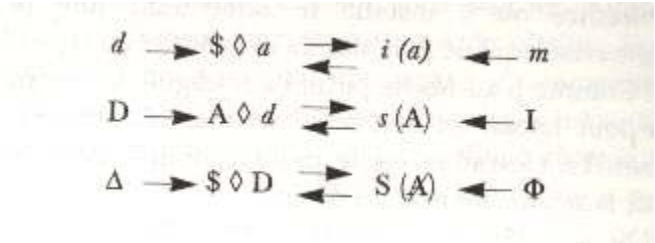
라캉과 욕망의 주체

제12강 주체와 대타자 1

제12강 1교시

■ 욕망의 그래프



—욕망의 대상은 타자의 욕망이다.
■ 욕망의 의미 차원이 주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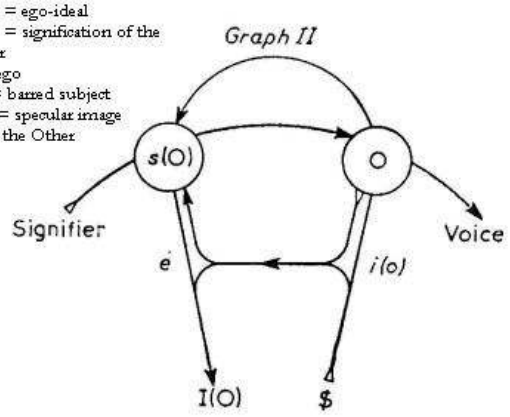
—욕구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언어 이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가정되는 것이다. 욕구는 상징계의 대표적 기표인 남근에 의해 구제가 되는데 욕구가 대상으로 바뀌는 것, 언어화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정성이나 완성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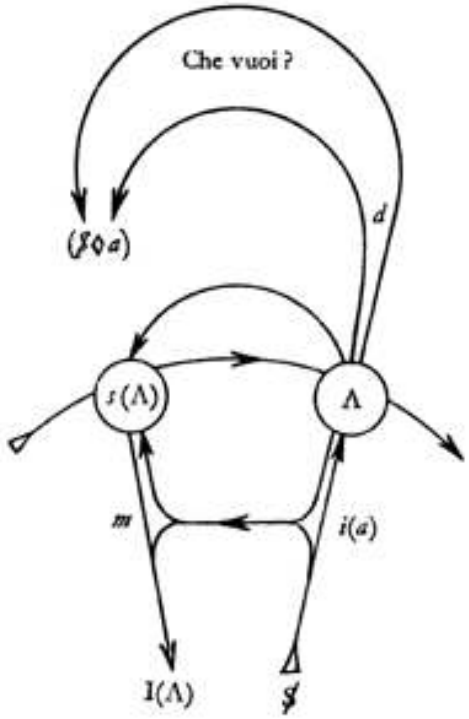
—언어가 욕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구에 대해 답을 줄 수 없기 때문
■ 요구 자체는 무조건적인 요구이고 '사랑의 요구' 인데 대타자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 욕구가 요구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괴리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지젝은 라캉의 이론이 가지는 혁명적인 차원이란 욕망이 언어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에 결여가 있다는 것, 즉 메타언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타자 자체가 주체와 같이 빗금 처져 있다는 것이다. 주체는 대타자를 향하지만 대타자 자체가 빗금 처져 있는 데서 욕망의 영속성이 나온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I(O) = ego-ideal
s(O) = signification of the other
e = ego
S/ = barred subject
i(o) = specular image
O = the Other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라캉과 욕망의 주체

第12강 2교시

■ 주체와 대타자

“ 주체는 데카르트적 주체로서 무의식의 전제이다. 대타자는 말이 진리로 정립되기 위해 요청되는 그러한 차원이다. 무의식이란 그 둘 사이에서 작용 중인 단절이다”. E, p. 839.

ㅡ담론은 일관성을 갖는 것을 지향한다. 하지만 말실수, 망각, 정동적인 차원, 미끄러짐과 같은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

ㅡ무의식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무의식을 만든다.

ㅡ단절적인 차원이 담론의 일관성을 깨뜨리면서 존재의 차원을 드러내 보여준다. 단절이 진리의 개념이다. 하지만 진리는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반만 말하기, 뒤집어서 말하기가 진리의 수단처럼 여겨지게 된다.

▲ 라캉의 주체개념

① 주체의 시간 = “무의식에는 시간이 없다”. 프로이트

• 주체성과 관련된 시간은 언제나 사후적이며 동시에 전미래.[1)]
사후적 개념은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 시간과 관련된다.
사후개념은 결여에도 적용된다.

예)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 있을 때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혁명에 의미를 부여하며 비로소 자리매김하게 된다.

ㅡ주체는 철저하게 사후작용의 산물이다. 그래서 주체의 시간은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논리적 시간이 된다.

• 논리적 시간(상호주체성의 시간)

: 주체가 스스로를 주체로 구성하는 순간은 타자와의 관계에 매개된다. 논리적 시간은 요청되고 전제된 것.

---

1) “내가 현재 생성되어 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 직전에 내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전미래 시제” E, p. 300.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1) 응시의 순간 2) 이해의 순간 3) 결론의 순간
(세 죄수들의 문제 참조 - 각자는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색깔을 알게 된다)

<세 죄수의 딜레마>
■ 주체성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된다. 주체성은 사후성만이 아니라 관계성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있고 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있으므로 내가 있게 된다.

ㅡ사후성과 관계성을 매개해주는 개념이 응시이다.

• 논리적 시간에 대응하는 세 주체

1) 비인격적 주체 (sujet impersonnel),
2) 상호간 불확정된 주체 (sujet indédini réciproque),
3) 스스로에 대해 확신하는 주체 (sujet de l'assertion sur soi-même)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